

[2013년 3월 9일 시행]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해설 - 전한길 교수

1. 신석기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삼동패총에서는 조가비 가면이 출토되어 제의를 행할 때 주술과 관련된 의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②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이미 가부장제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신석기시대의 주거생활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 온천 궁산리, 양양 지경리 등이 있다.
- ④ 서포항 유적에서는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장신구가 출토되었는데, 이들을 통해 토테미즘(Totemism)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 【정답】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2

【해설】 신석기시대까지는 가부장제 사회가 아니라 씨족을 단위로 한 모계 중심의 평등사회를 이루었다.

2. 신라의 관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세기 초 법흥왕 때 완성되었다.
- ② 왕경인에 대한 경위(京位) 17관등과 지방인에 대한 외위(外位) 11관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6두품은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대사(大舍)까지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 ④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6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위(重位)제도라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2.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13

【해설】 신라의 골품제도에 의하면 6두품은 6관등인 아찬, 5두품은 10관등인 대나마, 4두품은 12관등인 대사까지 진급할 수가 있었다.

3. 다음 중 삼국의 한강유역 쟁탈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비(碑)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북한산비 | ㉡ 단양적성비 | ㉢ 사택지적비 |
| ㉣ 중원고구려비 | ㉤ 백두산정계비 | ㉥ 광개토대왕릉비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9

【해설】 신라 진흥왕 때에 소백산맥을 넘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남한강 유역의 단양 적성 지역을 점령한 후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해당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비가 단양 적성비이고, 북한산비는 신라의 한강 하류 진출을 의미하는 비석이다.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넘어 남한강 유역의 충주까지 차지하였음을 의미하는 비석이다. 광개토왕릉비는 광개토왕의 정복기사 중에서 백제(아신왕)를 물리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파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때 상좌평을 지낸 사택지적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불당을 세우고 세월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백두산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청과 조선의 경계선을 정한 비석이다.

4. 다음 신라시대 불교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혜초는 인도를 순례한 후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 원효는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 ㉢ 의상은 화엄사상 뿐 아니라 관음신앙을 이끌며 많은 사찰을 세웠다.
- ㉣ 신라 말기에 교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 ① ㉠㉡ ② ㉠㉢ ③ ㉠㉣ ④ ㉡㉣

4. 【정답】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45

【해설】 화엄일승법계도는 원효가 아니라 의상의 저서이고, 신라말기에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 성행하였다.

5. 다음이 나타내는 고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

- ① 선왕(宣王) 때에는 3성 6부의 지방행정구역이 완비되었다.
- ② 이들 집단이 처음으로 터를 잡았던 동모산(東牟山)은 오늘날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돈화시에 있는 성산자산성으로 여겨진다.
- ③ 초기 왕족 등 지배층의 무덤인 육정산고분군은 고구려계 양식인 석실봉토분이다.
- ④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5. 【정답】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2

【해설】 제시된 자료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 3성 6부의 발해 중앙정치조직이 정비된 것은 문왕 때이고, 5경 15부 62주의 발해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된 것은 선왕 때이다.

6.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은 아침하는 소인들을 항상 옆에 두고 남몰래 희롱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기강이 문란해졌고 또한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은 사방으로 유리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국내가 어지럽게 되자, 견훤은 몰래 탄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남쪽 주현의 적도들을 토벌하니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호응하여 한 달 사이에 5천명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 ① 귀족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草賊)이 되었다.
- ② 6두품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성리학을 제시하였다.
- ③ 후삼국의 정립으로 신라의 지배권은 왕경 부근의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다.
- ④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호족세력이 성장하였다.

6. 【정답】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3**

【해설】 제시문은 신라 하대 신라의 혼란기 상황이고 이때의 6두품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하며 호족과 결탁하였다.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려에 소개되었다.

7.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고려시대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숙종의 후원을 받아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건하여 법상종과 선종의 여러 종파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 ① 남중국에 파견되어 천태학을 전했다.
- ② 풍수지리사상을 정립하여 궁궐과 사찰 건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③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내세워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 ④ 송, 요, 일본의 불교서적을 모아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7. 【정답】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55**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려의 의천에 대한 설명이다. 의천은 송, 요, 일본의 불교서적을 모아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풍수지리사상을 정립한 것은 신라 하대 도선이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강조한 것은 지눌이다.

8. 다음 주장을 편 인물의 건의를 받아 실시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려사>

- 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 ② 유교의 학식과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하였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③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지방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 ④ 정방을 폐지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8.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42, 50**

【해설】 제시된 자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이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최초로 12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광종,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정방을 폐지한 것은 공민왕이다.

9. 고려시대에 있었던 외적의 침입에 대한 사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최광윤의 보고에 따라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 조직
- ㉡ 김윤후가 이끄는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사살
- ㉢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 축조
- ㉣ 고려왕의 친조를 요구하며 침입한 거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전멸시킴
- ㉤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대하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며 대몽 항쟁 추진
- ㉥ 서희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압록강 동쪽 280여리 지역을 거란으로부터 돌려받음
- ㉦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안동으로 피난하였으나 정세운, 이방실 등이 격퇴시킴

- ① ㉠-㉤-㉢-㉡-㉣-㉦-㉥
- ② ㉠-㉤-㉢-㉣-㉡-㉥-㉦
- ③ ㉤-㉠-㉢-㉣-㉡-㉥-㉦
- ④ ㉤-㉢-㉠-㉣-㉡-㉦-㉥

9. 【정답】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46, 47**

【해설】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을 육성한 것은 고려 3대 정종 때,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몽골 2차 침입 때(1232년),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9성을 축조한 것은 1107년,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인 1019년, 삼별초의 대몽 항쟁은 1270~1273년, 서희의 강동 6주 획득은 거란 1차 침입 때,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공민왕이 안동(북주)까지 피난 간 것은 1261년 때이다.

10. 다음 ㉔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㉔ 은(는) 고려와 몽골간의 전쟁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70년에 고려와 몽골사이에 강화가 체결되면서 개경환도가 결정되자 이들은 조정의 결정에 불복하였다. 이후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이 때 육지의 반몽세력과 연합하여 강력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 보 기 >

- ㉠ 이들은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이자 무력적 기반이었다.
- ㉡ 그 구성원은 특별히 선발한 뛰어난 무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관군과 귀족장교로만 선발하였다.
- ㉢ 이들은 규모가 커진 야별초(좌별초, 우별초)와 대몽항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들로 창설된 신의군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 ㉣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면서 김통정의 지휘를 받았으나,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김통정이 전사하자 배중손이 그 지휘를 이어받아 제주도에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 ㉤ 무신정권의 사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도적의 체포도 담당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46

【해설】 제시문은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다. 삼별초는 관군과 귀족 장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최우의 사병인 좌별초, 우별초와 몽골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조정에서 개경환도를 결정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강화도-진도-제주도에서 몽골에 저항하였다.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손 장군이,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장군이 지휘하였다.

11.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에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그 후 실시지역이 확대되어 숙종 34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을 두었다.

- ① 제 고장에서 나지 않는 물건을 공물로 내게 하거나, 서리가 상인과 결탁하여 공납물을 미리 국가에 바치고 그 값을 비싸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받아냈다.
- ② 사족이 군역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기고, 요역을 담당할 장정들이 크게 줄어들자 군인을 요역에 동원하게 되었다.

- ③ 보인(保人)으로부터 조역가를 받아내서 이를 샅전으로 내고, 품을 사서 자신의 역을 대신 지게 하는 대립(代立)이 성립되었다.
- ④ 춘궁기에 빈민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원곡만을 회수하는 의창제를 대신하여 상평창제가 실시되면서 원곡의 10%를 이자로 받았다.

11. 【정답】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02

【해설】 제시문은 조선 후기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다. 대동법은 16세기 토산물의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다. ②, ③은 군역제도의 문란을 가리키고, ④는 환곡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2. 다음 반정(反正)을 도모한 정치세력의 대외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신 이이첨과 정인홍(鄭仁弘) 등이 또 그의 악행을 종용하여 임해군(臨海君)과 영창 대군을 해도(海島)에 안치하여 죽이고...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는 등 그 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선왕조의 구신들로서 이의를 두는 자는 모두 추방하여 당시 어진 선비가 죄에 걸리지 않으면 초야로 숨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였다. 또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해마다 설 새가 없었고,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 임금이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개연히 난을 제거하고 반정(反正)할 뜻을 두었다.
<조선왕조실록>

- ① 명나라 신종에게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기 위해 만동묘를 설치하였다.
- ② 광해군 집권당시에는 중립외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 ③ 명의 원군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고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 ④ 대의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제시하였다.

12. 【정답】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64

【해설】 제시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반대하고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던 서인에 대한 설명이다. 서인세력은 친명배금의 명분외교를 주장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상징으로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설치하였고, 서인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충청북도 괴산군에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한 만동묘를 설치하였다.

13. 다음 비문(碑文)을 세운 조선후기 왕(王)의 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루 하면서 무리 짓지 않는 것이 곧 군자의 공심이고
무리 짓고 두루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인의 사심이다.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心)

- ① 전국적인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여지도서』, 『동국여지도』 등이 간행되었다.
- ②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준론탕평(峻論蕩平)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양역의 군포를 1필로 통일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수성윤음』을 반포하여 수도방어체제를 개편하였다.
- ④ 국가의 문물제도를 시의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속대전』, 『속오례의』, 『속병장도설』 등 많은 편찬사업을 이룩하였다.

13. 【정답】 ②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73, 탕평비문 3.0배속 p.183

【해설】 제시문은 영조 때 세운 탕평비의 내용이다. ①, ③, ④는 모두 영조의 업적이고, ②의 준론탕평은 정조의 업적이다.

14. 다음이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임시관청이며,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정식 관청이 되었다.
- ㉡ 정청(政廳)과 권부(權府)라는 이중성이 상존된 것이며, 이의 준치는 결국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심화시킨 것이었다.
- ㉢ 임진왜란 이후 국정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최고 정부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 조선 후기 확대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던 국가행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왕권도 약화시켰다.

- ① 홍문관 ② 승정원 ③ 춘추관 ④ 비변사

14. 【정답】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72

【해설】 삼포왜란을 계기로 임시로 설치되고 명종 때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 문제 외에도 정치 문제까지 모든 정무를 총괄하게 된 기관은 비변사이다.

15. 다음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밑줄 친 ㉠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는)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한 책을 지었다. ㉠은(는) 봉당이 선비들의 먹이다툼에서 생겼다고 보고 선비들도 농사를 짓고, 과거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 ①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을 내세웠다.
- ② 은광의 개발, 화폐의 유통, 선박과 수레의 사용 등을 주장하여 유통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

였다.

- ③ 부세를 완화하고, 서얼 허통을 방지하며, 호포제 실시를 반대하였다.
- ④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매 호마다 영업전(永業田)을 갖게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토지균등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15. 【정답】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71, 175

【해설】 제시문에서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소개 및 비판한 백과사전은 이익의 성호사설이고, 봉당론을 통해서 당파싸움을 비판한 것 역시 성호 이익이다. 이익은 곽우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화폐 유통도 빈부 격차를 크게 한다고 하여 반대하며 폐전론을 주장하였다.

16. 다음 설명의 밑줄 친 ‘그’가 집권하여 개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단호한 결의로 47개소만 남기고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 ㉠ 갑신정변 ㉡ 신미양요 ㉢ 임술농민봉기
- ㉣ 제너럴서먼호 사건 ㉤ 오페르트 도굴 사건

- ① ㉠㉡㉢ ② ㉠㉣㉤ ③ ㉡㉣㉤ ④ ㉢㉣㉤

16.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183

【해설】 제시된 자료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대한 내용이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1863-1873)에는 제너럴서먼호 사건(1866)과 오페르트도굴사건(1868), 신미양요(1871)등이 있었다.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다.

17.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3·1운동은 일본의 통치 방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② 1910년대 일본은 우리 민족을 회유하기 위하여 문화통치를 펼쳤다.
- ③ 1920년대 실시된 회사령은 우리 민족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 ④ 1930년대 이후 전쟁이 시작되면서 보통경찰제가 헌병경찰제로 바뀌었다.

17. 【정답】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52

【해설】 일제시대의 1910년대는 무단통치를 하였지만 1919년 3·1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일제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회사령은 1910년에 공포되었고 1920년에 철폐되었다.

18. 다음은 어느 신문의 창간사이다. 이 신문이 창간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함.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일 터이요,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 신문에 설명할 터임...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 ① 윤요호 사건을 구실로 강압적인 문호 개방을 강요하여 강화도 조약 체결
- ②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리던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
- ③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민검호 집과 일본공사관을 습격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
- ④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이완용 내각이 새로 출범

18. 【정답】 ④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44, 404

【해설】 제시문은 1896년 4월에 창간된 독립신문의 창간사이다. 독립신문은 한글판 4면과 영문판 4면으로 발행되었다. 아관파천은 1896년, 강화도조약은 1876년,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다.

19. 다음은 일제시기 어느 단체를 설명한 것이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사정연구회, 정우회와 같은 좌우협력운동의 단체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에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 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펼쳤다.
- ②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반대하였다.
- ③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광주학생의거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하였다.

19. 【정답】 ①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293, 296

【해설】 제시문은 일제 시대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다.

신간회(1927)의 활동은 일본인의 조선 이민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지원 등이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2년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방해하며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20. 다음은 한국의 광복 이후에 대한 회의 결정문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중략)...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중략)...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 연방국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를 협약하기 위하여 미국·영국·중국·소련 여러 나라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제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중략)...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국, 소련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 ②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국은 2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 ③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반대운동에 나섰다.
- ④ 미국과 소련은 회의 결정 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0. 【정답】 ③ **전한길한국사 2.0배속 P.320, 324**

【해설】 제시문은 1945년 12월에 미, 영, 소 외무부장관이 참여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좌익과 우익 모두 반탁을 주장하였으나 좌익은 곧 모스크바 결정 지지로 돌아섰다. ②의 새롭게 구성될 임시민주정부에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이해 관계가 엇갈린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아니라 미소공동위원회이고, ④의 미소공동위원회는 3차례가 아니라 2차례 열렸다.